장쩌민의 여유 잃어버린 中

특파원 리포트

이 벌 찬
베이징 특파원

일본 유명 록밴드 글레이(GLAY)는 2002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초대를 받아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을 방문했다. 멤버 4명 중 2명이 장발, 2명이 금발이었다. 일본 측 인사가 "노랑 머리 일본인을 보신 건 처음이지요?"라고 하자 장 전 주석은 "이런 스타일도 꽤 괜찮네"라고 답했다. 선물로 전달한 기타도 활짝 웃으면서 받았다. 지난달 베이징 특파원으로 와서 장쩌민이 글레이와 찍은 사진을 중국인들에게 보여줬더니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6일 오전 엄수된 장쩌민 추도 대회에서 가장 크게 슬퍼한 이들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었다. 장쩌민은 재임 시절 비교적 자유로운 창작 풍토를 조성했던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최근 중국이 '문화 자강'을 외치며 문화·예술 통제를 강화하자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더 늘어났다. 지난달 28일 베이징 시위 현장에서 만난 영화 산업 종사자는 "지난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와 강도 높은 검열 때문에 중국의 문화 산업은 고사 직전"이라고 했다.

장쩌민은 1998년 중국에서 미국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되자 정치국원들에게 단체 관람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주의라고 해서 사상 교류를 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이 영화는 돈과 사랑, 빈과 부의 관계, 위기 속 개인들을 조명한다"고 했다. 그의 재임 시기에 한국 아이돌그룹 H.O.T., 배우 안재욱, 가수 이정현 등이 중국에서 최초의 한류를 일으켰다. 2001년에는 장쩌민이 합창단을 지휘하는 모습이 각국에서 전파를 탔는데 이 합창단의 단원들은 후진타오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 당시 권력 정점에 있던 정치인들이었다.

당시에도 미·중 관계는 험난했지만, 문화·예술을 이용해 부드럽게 풀고자 했다.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공동으로 악단을 지휘하고, 색소폰과 중국 전통악기 얼후(二胡)에 대해 논했다. 1997년 하와이 호놀룰루 방문 때는 바깥에서 반중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오자 연설을 멈추고 '알로하오에'를 기타로 연주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영국 BBC 방송은 "장쩌민은 문화적 소양이 가장 높았던 지도자"라며 "서방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도 장쩌민 시대였다"고 했다.

장쩌민 전 주석이 국내에 외국 문화를 들여오고, 국외에 '전랑 외교' 대신 '문화 외교'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중국은 지금에 비해 경제 규모는 작았지만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고, 성장의 기회만 보장받는다면 국제사회의 협상 요구에 얼마든지 응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인상을 찌푸리고 입을 닫는 대신 노래하고 연주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웃으며 노래하고 연주하는 날이 다시 오길 바란다.

朝鮮日報 The Chosunilbo 제31682호 단기 4355년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전화안내 02)724-5114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독자서비스센터 전화 1577-8585 FAX 02)724-6299 홈페이지 members.chosun.com
광고신청·안내 전화 02)724-5838, 6666 FAX 02)724-5809 홈페이지 about.chosun.com
구독·배달안내 전화 080-900-0077(전국 공용)
사장 方相勳 발행인·편집인·인쇄인 洪準浩 주필 楊相勳 편집국장 朱庸中
1920년 3월 5일 창간 · 1964년 1월 1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93〈日刊〉 조선일보사
구독료: 한달 2만원, 1부 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

선우정 칼럼

논설위원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오랜만에 그의 진가를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둘 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 키운 문제라는 취지다. 지나친 비유라고들 한다. 하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민노총 때문에 겪는 고통은 북핵과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생활을 망가뜨린다. 동네 주유소 기름을 동나게 하고,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노동자 밥줄을 끊어버린다. 북한이 내뱉는 상욕보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진군가가 현실에선 더 살벌하고 위협적이다.

영국인은 인내력이 강한 국민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공습으로 런던에 폭탄 비가 쏟아졌다. 9개월 동안 시민 3만명이 죽고 5만명이 다쳤다. 160만명이 집을 잃었다. 그래도 언론은 흥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몰리는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이 깔려 숨지자 영국 언론은 "영국의 수치"라며 시민 의식을 맹비난했다. 독일 공습에 자기 살자고 아이를 밟고 갈 정도로 영국인이 타락했느냐는 것이다. 영국에선 이 시기를 "가장 위대한 순간(Finest Hour)"이라고 부른다. 인내와 단결, 절제와 희생으로 영국의 위대함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도 견디지 못한 시련이 1979년 연쇄 파업이었다.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라고 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에 나오는 음습한 문구를 인용했다. 화물 운전사를 시작으로 철도 노동자와 간호사, 청소원, 시신 매장 노동자 등 150만명이 파업을 벌였다. 한 달 이상 물류가 마비됐고 치료와 수술이 중단됐다. 중환자가 죽어나갔다. 쓰레기와 죽은 노숙자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노동당 내각은 파업 두 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영국의 지배자는 여왕이 아닌 노동조합"이란 말을 증명했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노조 이익만 있었을 뿐이다. 승부사 마거릿 대처가 등장해 나라의 조종간을 잡을 때까지 영국은 이렇게 아수라장이었다.

민노총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다. 몰라서 하는 소리다. 1996년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총파업으로 좌초시켰다. 이 사건은 한국이 자체 개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는 중대한 신호를 국제 금융시장에 전했다. 한국이 몰락하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듬해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128만명이 직장을 잃었다. 자살자가 두 배로 늘었다. 민노총의 책임은 누구보다 컸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밀려난 노동자의 분노, 좌파 정권의 지원, 노동시장의 양분화를 교묘하게 이용해 반대로 힘을 키웠다. 그 힘을 활용해 광우병 난동을 선동하고 탄핵 집회를 주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외력(外力)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총이었다. 이후 민주당은 민노총의 국회 지부처럼 전락해 민노총이 주문한 청부 입법에 열을 올린다. 민노총은 영국 노조 못지않게 나라를 파탄내고 정치를 유린한 시대의 괴물이다.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한다. 장관급 관료가 퇴임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고, 당선 후 기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하는 소리일 것이다. 대중은 너무 쉽게 잊는다. 이해찬씨가 2018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말했다. 2020년 총선 대승으로 적어도 10년 집권은 무난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이 탄생했고, 실제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했다.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氣)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 증거로 폭로했고 20년 집권론을 5년 만에 끝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다.

민노총이 한국 좌파의 정점이기 때문에 대결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효율적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혁신으로 무장한 도전적 기업인, 미래를 내다보는 관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론이 있었다. 정치는 삐걱거리면서도 발전을 위한 제도를 적기에 만들었다. 한국이 가진 밑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민노총은 전방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전혀 다른 한국이다. 한국 사회가 MZ세대를 아낀다면 이 괴물을 그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 영국에서 탄광 파업은 1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고통을 법과 원칙으로 이겨냈을 때 승부사 대처는 세계의 전설이 됐다. 영국에 재도약의 시대가 100년 만에 찾아왔다.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 그때를 보는 듯하다고 한다.

萬物相

베트남, 적국에서 '기회의 땅'으로

13세기 초, 베트남 리(李) 왕조의 왕자가 왕조 교체기를 피해 중국 송나라를 거쳐 고려로 망명했다. 그가 대몽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자 고려 고종은 황해도 금천군 화산 땅을 하사하며 그를 화산군(花山君)으로 봉했다. 화산 이씨의 시조다. 베트남 정부는 화산 이씨를 리 왕조 후손으로 인정해 세금, 사업권, 출입국 면에서 베트남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거대 제국 중국과 이웃한 탓에 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역사적 시련을 겪었다. 한나라가 북베트남엔 한구군을, 고조선 땅엔 한사군을 설치했다. 당나라 땐 베트남에 안남도호부를, 고구려 땅엔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며 지배력을 행사했다. 식민지를 거쳐 분단, 전쟁을 경험한 과정도 비슷하다. 세계 최강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두 전쟁터가 한국과 베트남이었다. 6·25 전쟁은 미군이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고, 베트남에선 치욕적 패배를 당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두 나라는 적국이 됐다. ▶냉전 종식으로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다시 수교를 맺을 당시, 한국 외교팀은 베트남이 전쟁 배상 책임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일언반구도 없었다. 수교 도장을 찍은 뒤 베트남 외교관에게 이유를 묻자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베트남 측 협상 실무자였던 팜 띠엔번은 남북한 대사를 25년간 역임한 한국통이다. 세 아들 중 첫째는 한국 대기업 직원, 둘째는 주북한 대사, 셋째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를 이어 한·베트남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수교 30년(12월 22일) 만에 양국은 경제 공동체가 됐다. 올해 베트남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올랐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4000여 개, 고용 인원은 100만명에 달한다. 베트남 수출에서 한국 기업 비율이 35%를 차지할 정도다. 한국 기업 보수가 베트남 기업의 2~3배에 달하다 보니 한국어 배우기 붐이 일고 있다.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베트남의 제1 외국어가 됐다고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청년에게도 서로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한 한국 청년은 베트남에서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OKXE)을 창업해 매달 10만대 이상 거래를 중개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반대로 베트남 엘리트 청년들이 유학 후 한국에 정착해 교수, 경찰관, 공무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으로 자리 잡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때 총부리를 겨눴던 적국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공생 관계로 거듭났다.

김홍수 논설위원

차현진의 돈과 세상 [100]

최종 대부자

영국의 새 총리 리시 수낙은 인도계다. 영국 사회의 비주류라는 점에서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와 비교된다. 디즈레일리는 유대계였으며, 이름(Disraeli)의 앞뒤 철자를 빼면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42세에 총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낙은 로버트 젱킨슨과 닮은꼴이다. 젱킨슨은 15년을 재임한, 최장수 총리다. 혈기왕성한 탓인지 유난히 전쟁을 많이 치렀다. 1812년 취임 열흘 만에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때 영국군은 식민지에서 이탈한 미국을 혼내주려고 대통령 관저를 불태웠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복구한 다음 흰 페인트를 칠하고 백악관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젱킨슨은 나폴레옹과도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투기가 시작되었다. 남미 개발 붐이었다. 하지만 이내 거품이 꺼지고, 지독한 불황이 시작되었다. 1825년 금융 위기다. 처음에 젱킨슨은 투기꾼의 몰락을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금융 위기는 투기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멀쩡한 회사까지 쓰러지고, 경제가 진창에 빠졌다.

절치부심하던 젱킨슨 총리가 일요일 저녁 중앙은행 총재를 관저로 불렀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란은행 금고에 있는 금이나 법정 화폐 발행 한도 따위는 다 잊어버리시오. 일단 돈을 풀어 은행들을 살리시오"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들은 코넬리우스 불러 총재가 월요일 아침 돈을 풀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금융시장 경색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영란은행 스스로도 놀란 그것을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3년 뒤인 1828년 12월 4일 젱킨슨이 58세로 사망했다. 젱킨슨은 임기 말에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수낙은 취임 초부터 고생하고 있다. 수낙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종 대부자 기능에 의존할 수 없다. 지금 영국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부의 절제다. 흔한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경제 칼럼니스트

뉴데일리

법 위에 민노총, 민노총 위에 RO(혁명조직), 그 위에 또 무엇 있나?

"지금 파업은 정치파업...소위 '체제 대전환' 기도"
"이 싸움서 이겨야, 대한민국과 자유체제 산다"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자유진영이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진행되는 파업은 단순한 노동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 파업이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체제 대전환' 기도다.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자유민주체제도 무너진다. 귀족노조에 끼이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도 무너진다.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과 자유 체제를 아끼는 선의의 국민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12월 1일 "자유 진영이 이길 승산이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은 없다며 업무복귀 명령을 발동하니까, 파업 현장에서 국가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

"의왕 ICD에서는, 경찰관들이 운행차량에 동승-보호하니까, 불법행위가 사라졌다." "수색 성신양회 시멘트 싸일로에서도, 물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 광우병난동과 촛불정변서 정부 굴복 시킨 세력은?

급진 · 과격 · 극단 노동운동권은 광우병 난동과 촛불 정변 때는,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 정부 리더십은 약했고, 거짓 선동은 강했기 때문이다.

■ 운동권 화적(火賊)떼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정부 결의가 우선 단호하다.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를 씻어내고 있다. 민심도, 선동 언론의 기만과 과장과 양비론에 놀아나지 않는다. MZ세대도, 586 화적(火賊)떼에 휩쓸리지 않는다.

노동자들도 깨어나고 있다. 서울 지하철 공사의 제3 노조는 민노총 강경노선을 물리쳤다. 포스코 노조는 민노총을 탈퇴 했다. 철도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노사 공멸 아닌, 노사 공생의 길을 택했다.

■ 대장동 도둑질을 본 국민들은?

국민 일반도, 운동권 화적떼의 부패 · 타락에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대장동 도둑질을 본 국민은 저들의 '진보'가 순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급진 · 과격 · 극단 노동운동권이 그 가짜의 방탄복 노릇을 한다는 것도 국민은 알게 되었다. 오죽하면 야당 일부마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게 되었을까?

■ 이대론 안된다, 응답하라 대한민국

결론은 자명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운동을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 혁명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음모꾼 · 선동꾼들을 노동운동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절대다수 선의의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전 국민이 다음과 같은 사회계약에 합의했으면 한다.

"자유민주 국가 공동체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 합리적 권익추구 활동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빙자한 반(反)헌법적 · 불법적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응답하라, 대한민국.

"법 위에 민노총, 민노총 위에 RO (혁명조직) 그 위에 또 무엇?"

이런 가설은 사실인가, 아닌가?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2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